글동네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인류12022년 3월 23일 꿈일기

마사지사양반, 아니 야인시대 이석재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시간: 3월 23, 2022 댓글 없음: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광자는 동주로 갔네

광자는 동주로 갔네 언제나 그랬듯이
미행하고 쫓아가고 불쾌감을 주겠지
무식하게 큰 자여 부모께선 무얼 하시나
부끄럽지도 않는가 썩 물러가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
건들기만 하면 고통을 선사하리라
민중들이여 단단히 준비하라
광자를 물리쳐 평화를 지키리라

동지들이여 저 자는 광자이도다
제 수준을 못 하고 설쳐대기만 하지

동주로 못 오게 격히 사수하라
저 노른자를 막아내라 다시는 안 그러도록
우리 동주에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고통의 늪에 빠트리니라

울고짜고 빌어도 소용이 없다
한번 광자는 영원한 광자이오니
전 부대 전투준비 광자가 나타났다
끝까지 결사항쟁하라 동주평화만만세

시간: 3월 20, 2022 댓글 없음:

인류12022년 3월 20일 꿈일기

중화민국(대만) 국기를 보게 된 꿈을 꾸었다.

시간: 3월 20, 2022 댓글 없음: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인류12022년 3월 14일 꿈일기

12일 꿈으로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산 속에 있는 학교로 조끼 위에 흰 내복 차림으로 가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받음. 다시 집에서 제대로 입고 가려는데 넥타이를 못 찾음. 결국 지각하게 생겨 급히 등교를 하다가 어느 창문으로 도라에몽 어디든지 문 마냥 학교로 워프함. 그리고 실제 한 고등학교 동창이 나와 산책을 가면서 장난을 쳤고 산책 도중 어느 농장가에서 개 두마리와 새끼고양이 한마리를 보게 되었던 꿈을 꾸었다.

시간: 3월 14, 2022 댓글 없음:

2022년 3월 13일 일요일

태그

- 꿈일기
- 명언
- 일기

블로그 보관함

9월 2024 (1)
6월 2024 (2)
4월 2024 (1)
3월 2024 (2)
1월 2024 (1)
12월 2023 (1)
10월 2023 (1)
8월 2023 (2)
7월 2023 (1)
6월 2023 (2)
5월 2023 (5)
4월 2023 (4)
3월 2023 (5)
2월 2023 (12)
1월 2023 (11)
12월 2022 (7)
11월 2022 (3)
10월 2022 (3)
9월 2022 (1)
8월 2022 (2)
7월 2022 (6)
6월 2022 (7)
5월 2022 (5)
4월 2022 (4)
3월 2022 (8)
2월 2022 (8)
12월 2021 (7)
11월 2021 (2)
10월 2021 (2)
7월 2021 (1)
5월 2021 (1)

신고하기

- 홈

이 블로그 검색

검색

을숙도

복잡한 부산 시내를 벗어나
고요한 섬 을숙도에 가보자꾸나
우뚝선 낙동강하굿둑 다리 건너
아름다운 섬 을숙도에 가보자꾸나

철새들이 우리를 반겨주네
맑고 푸른 초원 위에서
자연을 느껴보자꾸나
크고 넓은 을숙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며
무겁게 쌓인 마음 풀어보자꾸나

어서오이소
도심 속 자연 을숙도로 퍼뜩 오이소
어서오이소
치유의 명소 을숙도로 퍼뜩 오이소

시간: 3월 13, 2022 댓글 없음: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인류12022년 3월 10일 꿈일기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

시간: 3월 10, 2022 댓글 없음: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우린 이제 싸이코가 아니야

해금조치를 거쳐 혁신개방으로
칼레이도스코프로 무한변화를
과오들은 모두 청산하였고
새로움의 길을 걷고 있도다

그러나 아직 우리를 헐뜯고
갈궈대는 자들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어찌해야 설득이 될까
정답은 아직도 미궁 속으로

우린 이제 싸이코가 아니야
우린 이제 싸이코가 아니야
이젠 싸이코가 아니라고
우린 이제 싸이코가 아니야
우린 이제 싸이코가 아니야
이젠 싸이코가 아니라고

시간: 2월 24, 2022 댓글 없음: